

“생활친숙형 앱으로 세계시장 도전”

광주앱개발센터 입주

‘1인 창조기업’ 흥기중씨

“이외수 작가도 사용하는 진돗개 앱을 아시나요?”
 광주 동구 무등빌딩 광주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에 입주중인 앱 개발자 흥기중(25)씨.
 흥씨가 운영중인 ‘이리듬스튜디오’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대표적인 1인 창조기업이다. 그는 대학과 군복무 시절 현대오일뱅크, 토지은행, 대우인터내셔널 등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차례 입상한 경험과 독학으로 배워 수준급에 이른 프로그래밍 실력,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운 경영학 지식 등 3박자를 갖춰 지난해 1월 ‘이리듬스튜디오’를 창업했다. 이후 지난 1년 동안 그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앱이 모두 6개에 이른다.

이리듬스튜디오 창업 1년새 6개 앱 개발 아이폰 도난방지 ‘진돗개’ 전세계서 인기

특히 지난해 6월 선보인 아이폰 도난 방지 앱 ‘진돗개’는 유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20만건 이상 판매되고 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진돗개는 내장 센서를 이용해 생활 충격과 도난 시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앱으로 도난 시도가 감지되면 설정에 따라 도난 알림 경고음을 울리거나 자동으로 긴급 번호에 통화를 시도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종료하거나 배터리를 제거해도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또 최근에는 여심을 사로잡는 앱 ‘네일스타’를 개발해 인기를 이룰 하고 있다. 네일아트 전문샵인 ‘뽀샵’과 제휴를 통해 제작한 네일스타는 실제 네일아트와 완성돼 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등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잡지 형식으로 제공한다.



흥씨는 “진돗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격량을 일일이 분석한 후 개발해 실생활에서의 실용성을 높인 기능성 앱이다”며 “기능성 앱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역 기관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광주시청 자미디어센터 앱을 제작중에 있다. 또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생활친숙형 게임 앱으로 해외 시장 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흥씨는 “한국 앱 개발자들 대부분이 한국시장 공략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신선한 아이디어로 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미래의 지진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스라엘 과학자 ‘화석 지진계’ 개발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고대의 지진 자료를 토대로 미래의 지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화석 지진계’를 개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다.
 슈무엘 마르코 교수가 이끄는 텔아비브 대학 연구진은 사해 지역의 변형된 퇴적층에서 특이한 ‘물결’ 현상을 발견했으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질학적·물리학적 자료를 결합시켜 화석 지진계를 만들었다고

지을로지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사해 지역의 진흙 퇴적층은 원래는 매우 안정된 방식으로 층을 이루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무거운 층이 가벼운 층 안쪽으로 파고든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이런 형태는 구름과 파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물리적 현상 같지만 암석층의 경우 바닷물이 아닌 지진의 진동이 물결 형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액체의 파동을 설명하는 ‘케빈-헬름홀츠 불안정성’을 암석층에 적용해 과거

지진에 의한 퇴적층의 변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지진들이 규모와 시간, 장소별로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밝혀냈다.
 연구진은 퇴적층의 변형이 처음엔 약한 물결 모양의 주름으로 시작하다가 보다 복잡한 누운 형태의 주름으로 발전하고 마지막엔 불안정성과 파편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르코 박사는 과거의 지진활동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지진계는 미국 서부 해안처럼 지진이 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즉 단층대가 호수나 바다 같은 큰 물과 만나는 지역에서 쓸모가 있을 것이며 수력 발전소 등 건설 계획을 세울 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삼성 ‘천지인’·LG ‘나랏글’·스카이 ‘SKY’

스마트폰 한글자판 국가표준 공동 채택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스마트폰의 한글자판 국가표준으로 삼성전자의 ‘천지인’과 LG전자의 ‘나랏글’, 스카이의 ‘SKY’를 공동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들 3가지 한글자판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 휴대전화는 천지인이 단일 표준으로 결정됐다.
 박재문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기술적으로 한 가지 자판만 탑재 가능한 일반 휴대전

화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천지인을 채택했고, 여러 가지 자판을 탑재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는 3가지를 모두 적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방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계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선정 위원회가 스마트폰 한글표준을 더 논의하고자 건의했지만, 공청회에서 이견이 도출되지 않아 업계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자연구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과 협력해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오는 6월 초 최종 국가표준을 제정해 내년 초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글표준도 변할 수 있다고 보고 ‘미래 모델’에 대한 한글 문자판 표준화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포럼’을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한글자판 표준을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원전 소프트웨어 공격에 취약하다

원자력 발전소나 정유 시설 등의 제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서 45종의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필수 인프라의 보안에 대해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고 MSNBC 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영국의 신기술 뉴스 및 여론 웹사이트 ‘더 레지스터’는 지멘스와 아이코닉스, 7-테크놀로지스, 데이텍, 콘트롤 마이크로시스템스 등의 프로그램에서 34개의 보안 버그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버그는 공격자가 원격 조종으로 압호를 실행하고 민감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주고 인터넷과 연결된 기계에 설치된 원격감시 제어 데이터수집 시스템(SCADA) 소프트웨어를 공격해 기기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모스크바의 보안회사 글레드가 SCADA의 취약점 11개를 부각시키는 익스플로잇 팩 ‘아고라 SCADA’를 공개한 지 1주일도 안 돼 일어난 일이다.
 SCADA 소프트웨어는 필수 인프라 시스템과 자동화 산업 제조시설, 정유와 산유 공정 등을 모니터 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 2010년 여름 이란의 부세르 원전을 공격한 악명높은 스텔스넷 워는 지멘스의 소프트웨어에 SCADA의 취약점을 침투시키도록 설계됐다.
 이런 취약성을 발견한 보안 전문가 루이지 아우리에마는 인프라 망의 업데이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SCADA의 결함을 겨냥한 개념증명 공격 코드를 공개했다.
 레지스터는 SCADA의 소프트웨어가 종종 구형 컴퓨터에서 발견된다고 밝히고 이런 컴퓨터들은 핵심 장치의 파손 없이는 교체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필수적인 보안 업데이트가 간과되는 일이 잦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넥슨, ‘던전앤파이터’ X박스용 개발

넥슨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엑스박스(Xbox)360용으로 개발해 연내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엑스박스360용 ‘던전앤파이터’는 MS의 네트워크망인 엑스박스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동일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ORPG)으로 서비스된다.
 게임 개발은 개발사 네오플의 총괄 아래 콘솔게임 개발사 소프트맥스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유통과 마케팅은 MS가 담당하기로 했다.
 넥슨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에 대한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며 MS는 일본어, 스



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을 말할 예정이다.
 넥슨의 온라인 게임이 엑스박스용 타이틀로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넥슨은 이로써 멀티플랫폼 진출을 강화하고 콘텐트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지구형 행성’ 우리 은하에 20억개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 가운데 70분의1은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이고, 이런 별들은 37개에 하나 꼴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갖고 있어 그 수가 약 20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프스 닷컴이 22일 보도했다.
 미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과학자들은 외부 행성을 찾기 위해 지난 2009년 발사된 케플러 망원경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태양과 비슷한 모든 별의 1.4~2.7%가 이런 행성을 거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 천체물리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들이 추적한 지구형 행성은 중심별과 알맞은 거리에 있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

하며 지름은 지구의 0.8~2배인 행성들이다. 연구진은 “우리 은하에만 이런 행성이 20억개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행성에 지적 생명체가 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은 우리 은하에만 국한된 이야기이고 우주에는 은하가 500억개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케플러 망원경의 자료를 3~4년간 분석하면 지구와 닮은 행성을 12개쯤 발견할 것이라며 이미 공개된 케플러의 4개월 분 자료에서 이미 이런 행성이 4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타박스 24시 사우나·찜질방

땀만 빼는 찜질방은 이제 가라!

스타박스가 광주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우나·헬스·에어로빅·요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Multi-Plex Fitness System’으로 잃었던 ‘당신의 젊음’을 되찾으세요!







| 회원가입 · 상담문의 | 062-383-7272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4 |
 (내비게이션에서 '스타박스 사우나' 주소를 검색하세요)